

아시아 도자문화 교류 거점 '도자문화관' 12월 개관한다

국립광주박물관, 올 주요계획 발표...신안해저문화유산실 등 전시실 신창동 유적 등 지역사 조사 연구·국보순회전·다채로운 맞춤형 교육

지난 1976년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신안선은 중국 원나라 때 무역선이었다. 배에는 적재된 무역 품으로 당대 문화와 종교 등 다양한 생활상을 알 수 있었다.

지난 1984년까지 신안선 발굴을 토대로 우리나라 수중고고학이 생겼으며, 국립광주박물관 또한 1978년 개관했다. 특히 광주박물관은 그동안 광주 전남의 문화유산을 수집·보관,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전시와 콘텐츠를 선보여 왔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최흥선)이 올해 아시아 도자문화 교류의 거점이 될 도자문화관을 오는 12월 개관하고 도자문화 교류의 거점으로 새롭게 도약한다.

최흥선 관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도자문화관 개관을 비롯해 신창동 유적 등 지역사 조사 연구, 국보순회전, 다채로운 맞춤형 교육 등이 포함돼 있다.

먼저 최 관장은 "도자문화 건립은 광주박물관이 새롭게 발돋움하는 주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의 대표 문화자산인 도자기를 모티브로 아시아 지역과 교류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도자문화관은 강진의 고려청자를 비롯해 광주 충효동 분청사기 등 출토 도자들과 연계해 도자문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지역 발굴 도자들이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 소비됐는지 일련의 과정도 시민들과 함께 나눌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자문화관은 1층 한국도자문화실, 신안해저문화유산실, 신기술융합콘텐츠실로 구성되며 2층에는 문화를 느끼고 쉴 수 있는 힐링공간(카페)으로 꾸며진다.

광주박물관은 도자문화관 개관과 맞물려 도자를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고 재해석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전통적인 방식과 현대적 방식의 기술 등을 주제로 색이나 형태를 깊이 있게 들여다 보고, 새롭게 마련된 신기술융합콘텐츠실은 미디어아트 등과 접목해 도자문화를 첨단 영상으로 제공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도자문화관은 향후 2028년 개최 예정인 전남세계도자&세라믹산업엑스포와 전남 세라믹 산업 육성 등 지역의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진다.

광주박물관은 올해 '광주 신창동유적 문화경관 복원' 사업 종합보고서도 펴낼 예정이다. 신창동 유



청자 참외모양병 (국보)



분청사기 연꽃 넝쿨무늬 병 (보물)



초의선사 간찰

적은 마한인들의 생활상을 가늠할 수 있는 마한역사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박물관은 보고서가 우리나라 생태환경뿐 아니라 당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풀어내고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초의선사 유물 번역사업은 올해도 계속돼 '초의선사 유물 번역집'도 발간한다

또한 박물관은 호남고고학회와 함께 진행하는 '선사·고대 한반도의 식량' 연구도 계속한다. 지난해 식량 생산에 초점을 맞췄지만 2025년에는 식량 소비 양상 등에 포커스를 두고 연구할 계획이다.

지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국보순회전도 예정

돼 있다. '모두의 걸음으로: 분청사기' (가제)전을 열어 지역민 문화향유에 기여한다는 복안으로,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열 계획이다.

하반기 연말에는 도자문화관 개관을 기념하는 '푸른 세상을 보다-고려 삼강청자'가 펼쳐진다. 고려청자의 조형미를 대표하는 삼강청자의 미적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기회로 국보인 청자 참외모양병을 포함해 지정문화유산 100여 점이 관람객들을 맞는다.

연령층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모두 14종 128회. 청소년과 문화유산의 만남을

토대로 한 '스클림유지업', 도자기 조각을 토대로 도자문화를 경험하는 '고려청자 몸타주', 문화소의 계승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박정일 학예연구실장은 "올해는 도자문화관 개관과 맞물려 지역의 도자와 도자문화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며 "주제별, 연령별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통해 박물관이 더욱더 시민들 곁으로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오티움콘서트부터 특별연주회까지...광주시향 클래식 '향연'

상반기 시즌 프로그램 공개

3월 'Ignition'·4월 '운명의 봄' 등

광주시향교향악단(지휘자 이병욱)이 2025년 상반기 시즌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교향악축제 프리뷰 공연부터 오티움 콘서트, 체임버 시리즈 및 특별 연주회까지 각각각색 프로그램이 '라인업'했다.

먼저 푹푹 있는 실내악을 감상하는 '체임버 시리즈' 첫 무대는 오는 21일 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Cello moments'로 막을 올린다. 쿼터와 콩크, 비발디, 포퍼 곡으로 채워지며 이후성·석민정·나유빈·장서을 등이 첼로를 연주한다.

이어지는 'Ignition'은 3월 14일 공연하며 슈베르트 '현악 삼중주 B플랫장조 D.471'를 비롯해 도흐나니, 모차르트의 두 곡을 만난다. 강다영(바이올린), 유효림(비올라), 장서을(첼로), 김예남(플루트)이 무대에 오른다.

5월 16일에는 브루흐, 브람스 등 곡을 듣는



지휘자 이병욱



피아니스트 임주희

'Romance of may'가 펼쳐질 예정이다. 광주시향이 '잘 하는 레퍼토리'로 알려진 쇼스타코비치 중 '바이올린, 비올라, 피아노를 위한 5개의 소품'이 관객을 만난다.

아울러 4월 1일 오후 7시 30분에는 '2025 교향악 축제 프리뷰'가 광주예술의전당(이하 전당)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드뷔시 '달빛'을 필두로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B단조 Op.104', 프랑크 '교향곡 D단조' 등이 올려 퍼지며 첼로 연주에 이상은.

같은 달 25일에는 피아니스트 김태형 협연으로 '운명의 봄'을 선보인다. 슈만 '만프레드 서곡 Op. 115',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 A장조 K. 488', 베토벤 '교향곡 5번 C단조 Op.67' 등이 레퍼토리에 있다. 두 공연 모두 광주시향 이병욱 신임 지휘자가 지휘봉을 잡는다.

이외 특별연주회 '모래 위의 클래식'은 어린이 관객을 위한 키즈 콘서트로 5월 2~4일, 2025 예술의전당 '교향악 축제'는 4월 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이병욱 지휘로 만난다. 페르티, 브루크너로 채워지는 '형제들'은 5월 30일, 쇼팽과 프코피에 프를 피아니스트 임주희 협연으로 듣는 'Contrast'는 6월 27일 각각 전당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한편 1976년 창단한 광주시향은 연간 70회 이상 연주회를 통해 지역 관객들을 만나 왔다. 그동안 백건우, 조성진, 손열음, 임윤찬 등 세계적인 연주자와 협연하면서 감동을 선사했다.

전당 홈페이지 등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윤동주 80주기...日 도시사대 명예박사 수여

서경덕 교수, "윤동주도 자국민이라 우기는 중국" 비판

'서시', '자화상', '별 헤는 밤' 등의 작품을 남긴 윤동주(1917~1945) 시인에게 일본의 모교인 도시사(同志社)대가 16일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일본 교토의 도시사대는 이날 교내 예배당에서 학위 수여식을 열고 윤동주 시인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1875년 설립이 대학이 사랑한 사람을 상대로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것은 처음이다.

도시사대는 작년 12월 고히라 가쓰히로 총장 주재로 학장단 회의를 열고 윤 시인에 대한 명예 문화박사 학위 수여를 결정했다.

이 대학 이타카기 류타 사회학부 교수는 "재학 중 체포돼 숨진 윤 시인을 대학 측이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이 담긴 특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여식에는 고인의 조카인 윤인석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참석했다.

윤 교수는 행사 참석 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995년 도시사대에 시비가 건립되고서 30년이 지나면서 일본에도 고인의 영향이 커진 점을 인정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시사대 교내에 세워져있는 윤동주 시비 앞에서는 시비 건립 30주년 추도식 실행위원회 주최로 추모식이 열렸다.

전창수 주오사가 총영사는 기념사를 통해 "한일 양국의 슬픈 역사 속에서 치열하게 산 윤동주 시인의 생애와 삶에 대한 경건한 자세를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의 뜻깊은 해에 시인의 정신을 되새기며 한일 우호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명예박사 학위 수여 및 추도식에는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여야 의원도 참석했다.

윤동주는 연희전문학교(연세대 전신)를 졸업한 뒤 도쿄에 있는 릿쿄대에 진학했다가 1942년 10월 도시사대 문학부 문화과 영어영문학 전공



윤동주 시인 도시사대 시비 건립 30주년 추도식

으로 편입해 다니던 도중 1943년 조선 독립을 논의하는 유학생 단체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이어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돼있다가 광복을 6개월 앞둔 1945년 2월 16일 28세의 나이로 옥사했다.

한편 윤동주의 서거 80주기를 맞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윤동주마저 중국인이라 우기는 중국 측 행보를 비판했다.

서경덕 교수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은 여전히 윤동주에 관한 왜곡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에 따르면 윤동주 시인의 국적을 '중국'이라고 표기한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 백과사전은 지난 5년간 꾸준히 항의 메일을 보낸 서 교수 측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

중국 엔베코선쪽차치주 룽징시에 있는 윤동주 생가 입구에는 '중국조선족애국시인'이라고 적힌 대형 표지석이 그대로 남아있다. /연합뉴스

동구서 가장 만족도 높은 장소는 '전일빌딩245'

광주동구문화재단, 관광객 조사...ACC 상상마당·K-POP 스타거리 순

광주 동구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전일빌딩245(전일마루)'가 가장 만족도 높은 장소(215명·29%)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광주동구문화재단(대표이사 문창현·재단)이 '토퍼씨와 롤리폴리 동구미션투어' 참가자 612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집계됐다.

전일빌딩245에 이어 ACC 상상마당(95명·13%), K-POP 스타거리(93명·12%·사진), 동구미션투어와 무등갤러리(70명·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작년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한 투어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이밖에 만족도 높은 장소로는 동명동 카페거리나 광주 폴리 아이러브 스트리트, 지역의 상사, 부폴리 등도 포함됐다.

설문에 참가한 관광객들은 '전체적으로 투어에 만족하며 동구 재방문 의사가 있다(94%)'고 응답했다. 다만 응답자 중 73%는 "코스"에 포함돼 있던 '광주 폴리'에 대해 몰랐다"고 응답해, 주요 문화관광 시설에 비해 인지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동구 7대 주력 골목관광 코스에 스토리를 가미한 '동구질성'을 추진, 관광객 재방문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재단 문창현 대표이사는 "광주 동구는 근대문화



와 첨단예술이 공존하고 있어 매력적인 '도심 여행지'로서 가치가 있다"며 "올해는 스토리텔링 연계 '동구형 골목관광 상품'을 확장해 광주관광 핵심 코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